

국어 로마자와 라틴화신문자의 논쟁 양상 분석*

김상원**

◁ 목 차 ▷

- I. 들어가는 글
 - II. 공용어 구축 전략을 둘러싼 논쟁
 - III. 성조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논쟁
 - IV. 나오는 글
-

I. 들어가는 글

20세기 초 중국은 전국적 공용어의 부재와 심각한 방언의 편차, 전체 인구의 80~90%에 달하는 문맹률과 그로 인한 사회문화의 정체 등의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국어 로마자 방안과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원인이 한자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어문체계에 있다고 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하지만 두 방안은 당면한 어문현실에 대해 각기 다른 상황 인식과 대응 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모 체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병음문자 체계를 갖게 되었다.

국어 로마자 방안은 국어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면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대중어문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두 방안은 병음문자 방안의 기초를 '서면어'에 둘 것인지 '구두어'에 둘 것인지, 창안 목적을 '국어'의 표기에 둘 것인지 아니면 '대중어문'의 표기에 둘 것인지, 사용 주체와 용도를 지식인들의 새로운 서사 도구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대중들을 문맹상태로부터 해방시키고 정치·문화적 소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서사 도구로 규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 본 논문은 2014년도 1학기 한양여자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됨.

** 한양여자대학교 통상중국어과 부교수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다.

국어로마자 방안과 라틴화신문자 방안에 대한 기존의 시각은 로마자모를 채용한 동일 계열의 병음문자 방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두 방안의 성격과 특징은 로마자모라는 공통분모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두 방안이 공용어 구축 전략과 성조 처리 방안을 둘러싸고 진행했던 논쟁 양상을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두 방안이 기본 목표와 자모 체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성격의 병음문자 방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공용어 구축 전략을 둘러싼 논쟁

1. 기본 입장

국어로마자 방안은 그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국어’의 표기 방안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그리고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처음에 ‘북방어 라틴화신문자’¹⁾로 불렸던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방언’의 표기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전국적 공용어의 부재와 심각한 방언의 편차 문제에 대해 국어로마자 방안은 북경어를 표준으로 삼아 ‘국어’를 보급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방언들을 통일시키는 동시에 병음문자 방안의 전국적 소통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비해 라틴화신문자 진영은 병음문자 방안이 전국적 소통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다수 대중들이 문맹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어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먼저 전국의 방언 구역을

1)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애초 소련의 극동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중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山東省과 江蘇省, 浙江省 출신으로 주로 산둥 반도에서 발해만을 건너 요동반도와 만주를 거쳐 시베리아로 건너왔다. 따라서 이들이 사용하는 말은 동북방언으로 산둥어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대체로 중국 북방어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을 위해 만든 방안을 ‘北方話拉丁化新文字方案’ 또는 ‘北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홍인표, 《중국의 언어정책》(고려원, 1994) 86쪽과 倉石武四郎 著 / 金鍾五 譯, 《漢字的運命》, 139쪽 참조.

6~7개로 구분하고 구역마다 방언 라틴화신문자를 만든 후에 점차 방언 간의 공통 분모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전국적 ‘공용어’를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높은 문맹률과 그로 인한 사회문화적 정체 문제에 대해서도 국어로마자 방안은 기존에 한자로 표기하던 ‘서면어’를 병음문자로 표기해주는 방식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했다. 이에 비해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각지 대중들이 자신들의 ‘구두어’를 병음문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했다. 즉 국어로마자 방안이 백화문에 사용된 ‘한자의 표준 독음’을 병음문자로 표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한자의 매개 없이 ‘구두어의 어음’을 직접 병음문자로 표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2. 주요 쟁점

먼저 라틴화신문자 진영에서는 방언과 어음의 편차가 심했던 당시의 객관적인 어문현실을 고려할 때 북경어를 표준으로 삼아 국어를 통일해 나가야 한다는 국어로마자 진영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절대 다수의 대중들에게 북경어는 외국어만큼이나 어색한 것이어서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중국의 각 영역에서 진정한 북경어를 할 줄 아는 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방언의 일부분만 희생시키고 이도저도 아닌 어색한 북경어를 배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히 북경의 독음과 어조에 따라 표음법을 만든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²⁾

더욱이 절대 다수의 대중들이 방언을 사용하고 문맹 상태에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북경어를 표준으로 삼아 국어를 통일시켜 나가기 전에 대중들이 자신들의 구두어를 표기할 수 있는 별도의 병음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 瞿秋白, 〈羅馬字的中國文還是肉麻字中國文?〉, 《瞿秋白文集·文學編3》, 人民文學出版社, 1985. 228쪽.

중국에는 문맹률이 매우 높다.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언어를 통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문맹을 없앨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문맹을 소멸시킬 방법으로는 국어교육이 아니라 먼저 문맹자들의 토속어로 문맹자를 교육해야 한다. 국어교육은 고급의 교육용으로만 삼을 수 있지 초급의 기본 교육용으로 삼을 수는 없다.(북경은 예외이다.) 문맹자들의 토속어로 문맹자를 교육하려면 먼저 토속어를 위한 자모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라틴화신문자가 방언 라틴화 쓰기법을 허용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국어가 일국 안에서 통용되는 매개어라면 세계어는 세계 각국의 매개어이다. 세계어는 배우려고 하면서 본국어는 전혀 필요 없다는 사람은 바보라는 것을 누구나 안다. 같은 이치로 국어를 배우려면 방언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³⁾

라틴화신문자 진영은 당면한 어문 현실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동안은 전국적 공용어와 방언의 상호 공존과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북방어 라틴화신문자를 기본 자형으로 삼아 각 지방의 방언음을 표기하기 위한 새로운 자모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버전의 방언 라틴화신문자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는 전국 공용의 '주요한 문자'인 라틴화신문자를 사용하고, 일상의 영역에서는 해당 지역 대중들이 전용하는 '보조 문자'인 방언문자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⁴⁾

각 지역 방언의 경우 어떤 방언이 실생활에서 문자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면 이 방언문을 현지의 문자로 제정할 수 있다.(물론 방언문의 병음 방법과 자모는 '공통어문'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중국의 공통어문'은 장차 전체 중국의 공용 문자가 되어야 하며, 각 지방의 방언문은 현지 민중들이 전용하는 문자가 되어야 한다. '新中國文'은 중국의 '주요한 문자'이며, '新上海文', '新北平文', '新廣州文' 등은 해당 지역의 '보조 문자'로 삼을 수 있다.⁵⁾

이에 대해 국어로마자 진영에서는 라틴화신문자 진영의 방식으로는 전국적 공용어를 구축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한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 李應, 〈希望大家放棄成見〉,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時代出版社, 1949년판 영인), 《民國叢書》編輯委員會 編, 《民國叢書》第二編 52, 上海書店, 1989. 175쪽.

4) 拙稿, 〈瞿秋白의《新中國文草案》研究〉, 《中國文學研究》第41輯, 서울, 韓國中文學會, 2010. 12. 90쪽 참조.

5) 瞿秋白, 《新中國文草案·緒言》, 《瞿秋白文集·文學編 3》, 424쪽.

중국의 방언, 특히 남부 지역은 종종 산으로 격리되어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한다. '국어의 통일에 반대하는' 라틴화신문자는 이러한 '산으로 격리된' 문자만 허용하고, '산을 뛰어넘는' 문자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허용을 막기 어려울 것이며, 그렇다면 예전처럼 한자에 의지해 '산을 뛰어넘어야' 한다. 국어로마자는 현 단계의 이러한 수요를 잘 알기 때문에 국어의 통일을 반대하지 않고 하나의 표준어를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라틴화신문자처럼 결국은 한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⁶⁾

국어로마자 방안이 표준으로 삼은 북경어는 과거 수 백 년 동안 각종 방언들이 서서히 융화되어 형성된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북경은 수 백 년 동안 중국의 정치경제적 중심지로서 전국 각지의 사회문화와 밀접한 교류 관계를 맺어 왔다. 이에 따라 북경어도 자연스럽게 전국 각지의 방언들 중에서 우수한 성분을 받아들이고 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력을 확대해 왔으며, 사실상의 공용어로 기능해왔다. 따라서 북경어는 이미 새로운 전국적 공용어의 표준이 될 만한 충분한 근거와 자격을 갖고 있었다. 더욱이 국어로마자 진영 사람들은 중화민국 초기부터 국어운동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국음의 표준을 역사음위와 방언음위가 뒤섞인 종합음계에 기초한 '老國音'에서 현대 북경의 살아있는 음이라는 단일음계에 기초한 '新國音'으로 전환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⁷⁾ 이 때문에 국어로마자 진영이 볼 때 라틴화신문자 진영의 공용어 구축 전략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부정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6) 黎錦熙, 〈蘇俄的(中國字拉丁化)與國定的(國語羅馬字)之比較〉, 《中國語文的新生》, 130쪽.

7) '국음자모 제1식'인 '주음자모' 방안은 한어의 역사음위와 방언음위가 뒤섞인 종합음계에 기초하고 있었다. 즉 그것은 옛 독서음과 관화음, 남방음과 북방음이 혼합된 일종의 '인공적인 국음'이었다. 이를 '老國音'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언어'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표준음으로 삼아 전국적으로 보급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어음계통이 없었다. 따라서 그것은 '국어'를 지향하고 공식적으로 '국음자모'의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글자의 독음 표준이나 통일 언어를 보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국음자모 제2식'인 국어로마자 방안은 극히 일부 제한된 용도의濁聲母를 제외하고는 '현대 북경의 살아있는 음'이라는 '단일 음계'에 기초하여 제작된 것이었다. 때문에 근대 '국어'가 요구하는 어음의 표준성과 통일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이를 '新國音'이라고 한다. 拙稿,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과 '國語羅馬字' 방안〉, 《中國文學研究》第45輯, 서울, 韓國中文學會, 2011. 11. 204쪽 참조.

“각종 방언들이 서서히 용화되어 통일된 언어가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원나라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며, 현 단계의 수요에는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중략) 라틴화신문자는 곧장 각종 방언의 우수한 성분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대중적인 공용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도 1913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1913년의 國音은 바로 이 길을 걸었다가 실패한 것이다. 다시 이 길을 걷는다면 이제 라틴화신문자는 공공을 위한다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언어를 써내는 ‘신문언’에 근거한 문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알아볼 수 있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대중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은 체념하고 한자의 길로 회귀하여 정말로 한자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⁸⁾

이에 대해 라틴화신문자 진영에서는 문제는 북경어가 표준인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준의 북경어화와 협소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처럼 절대 다수 방언 사용자들의 구두어와 너무나도 차이가 큰 북경어를 표준으로 삼아 ‘국어’를 보급하려고 한 것이 국어로마자 방안의 주요한 실패 요인 중의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틴화신문자 방안의 등장은 중국 북방 보통화의 공통 요소의 요구에 근거하여 북경어의 독재 현상을 타도하고 일어난 자연스러운 분화이며, 이러한 분화만이 북방어의 보편성과 확실성을 보증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⁹⁾ 이는 역대로 한 번도 공식적으로 공용어의 비교 검토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던 방언에서 공용어로 활용 가능한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발굴함으로써 전국적 공용어의 표준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확장시키려는 전략이기도 했다.

이처럼 국어로마자 진영은 국가의 통일 언어인 ‘국어’로, 라틴화신문자 진영은 대중들의 보편적인 어문체계인 ‘대중어문’으로 당면한 어문현실의 과제들을 타파하고자 했기 때문에 공용어 구축 전략을 둘러싸고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양 진영의 대립과 논쟁은 일정 정도 상호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먼저 국어로마자 방안의 ‘국어’ 기획이 일방적으로 북경어의 특권만 주장하며 방언은 무조건 배척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달랐다. 국어로마자 방안은 방언을 표기하기 위해 주음자모 방안에서 채용했던 탁음 성모를 그대로 계승하고, 閩音符號라는 일련

8) 黎錦熙, 〈蘇俄의(中國字拉丁化)與國定的(國語羅馬字)之比較〉, 《中國語文의 新生》, 131~132쪽.

9) D.T.M. 〈國語羅馬字與拉丁化〉, 《中國語文의 新生》, 190쪽 참조.

의 자모를 만들기도 했으며, 6~7 종류의 '방언 로마자'를 보급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다만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고, 정부도 그것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았을 뿐이다.

라틴화신문자 진영이 국어 통일과 표준어에 반대한다는 것도 사실과 달랐다. 그들이 반대한 것은 국어의 '통일'이 아니라 국어의 '통일 방식'이었다. 그들도 전국적 공용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국어로마자 방안처럼 어느 한 지역의 언어를 '국어'의 표준으로 삼아 전국의 언어를 통일시켜 나가는 소위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강압적이고 일원적인 언어 정책이 아니라 공용어와 방언의 공존을 전제로 대구역 방언들의 공통분모를 확대해 나가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자연스럽고 다원적인 통합의 방식으로 공용어를 구축해 나가고자 했을 뿐이다.

Ⅲ. 성조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논쟁

1. 기본 입장

국어로마자 방안과 라틴화신문자 방안 사이에 쟁점이 되었던 또 하나의 사안이 성조 처리 규정이었다. 국어로마자 진영에서는 '성조'를 성모, 운모에 버금가는 주요 어소로 간주하여 반드시 자모 형태로 병기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성조를 네 종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조에 따라 서로 다른 자모를 첨가하거나 변환하는 방식으로 모든 어휘에 해당 성조를 병기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라틴화신문자 진영에서는 '성조'를 일종의 음조 변화로 간주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단어는 보통 병음법에 따라 성조를 표시하지 않고 성모와 운모만으로 어음을 표기하고, 성조를 표기해주지 않을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어근'에 한해 특별 병음법에 따라 별도의 자모를 중첩하거나 첨가, 변환하는 방식으로 성조를 표기하도록 했다.

한편 두 방안의 서로 다른 성조 처리 방안은 서로 다른 공용어 구축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어음과 성조를 '표준화'하는 것이 전국적 공용어의 부재와 심각한 방언의 편차, 그리고 높은 문맹률로 인한 사회문화적

정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어로마자 방안처럼 한 지역의 언어를 표준으로 삼아 전국의 언어를 통일하는 국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는 ㅍ聲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곳에서는 ㅍ聲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는 ㅍ聲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곳에서는 ㅍ聲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느 한 지역 언어의 성조를 표준으로 삼아 통일시킬 필요가 있었다.¹⁰⁾ 하지만 라틴화신문자 방안처럼 각 지역 방언의 공존을 권장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각지 방언의 자연 성조들을 인위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성조 처리 문제는 성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성조는 꼭 표기해야만 하는 것인지, 성조의 표준화는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느 지역의 성조를 표준으로 삼을 것인지와 같은 원론적인 문제에서부터 성조를 표기한다면 모든 어휘에 일률적으로 표기할 것인지 일부만 표기할 것인지, 자모로 표기할 것인지 별도의 부호로 표기할 것인지, 성조 표기가 동음이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성조 표기 규칙의 난이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성조를 자모로 병기할 경우 한어 병음문자의 국제적 소통성에는 지장이 없는지와 같은 실용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차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성조 처리 문제를 둘러싼 양 진영의 논쟁 구도 속에는 '성조의 위상과 성격', '동음이의어 처리와 성조 표기', '표준 성조의 실효성' 등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과 판단이 내포되어 있었다.

2. 주요 쟁점

1) 성조의 위상과 성격

성조를 자모로 표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병음법의 간소화, 단어의 길고 짧음, 서사의 편리함 여부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성조를 병음문자의 구성 요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음의 부가적 요소인 음조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병음문자의 구성 요소로 간주

10) 紺弩, 〈技術呢? 政治呢?〉, 《中國語文的新生》, 135쪽 참조.

한다면 자모로 병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부가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성조 표기 문제는 결국 성조의 위상과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국어로마자 진영은 성조가 성모나 운모와 더불어 어음의 변별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자모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한어를 병음문자로 표기할 때는 반드시 자모와 함께 병기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聲調(tones)는 한어에서 輔音(consonants, 子音)이나 元音(vowels, 主要 모음)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하게 중요한 음소이며, 신문자를 만들 때 소홀히 다루면 안 되는 성분이다. 서로 다른 원음과 보음으로 서로 다른 글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전 세계 각종 언어의 일치된 모습이다. 한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결코 특별하지 않다. 다만 서로 다른 성조로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한어만의 특성이다.¹¹⁾

그리고 이처럼 한어에서 성조는 ‘말할 때의 語調가 아니라 글자 고유의 음조인 字調’이므로 ‘외국어의 악센트와는 성격이 다르며, 따라서 라틴화신문자 방안처럼 성조를 일종의 음조 변화로 간주하고 표기하지 않는 것은 한어의 중요한 특성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라틴화신문자 진영에서는 자신들이 반대하는 것은 “周顛, 沈約 이래의 서면어상의 사성 구분법과 국어로마자의 사성 부호이지 구두어 발음의 높고 낮음이나 길고 짧음의 성조가 결코 아니다.”¹²⁾ 따라서 마치 성조 자체를 부정하거나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사성을 폐지해도 서면어에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중략) 한자는 중국에서 수 천 년을 존재해 왔으며 수많은 단어들이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학술 용어는 한자의 영향이 매우 크다. 설사 한자를 오늘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신문자 속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단음어, 동음어, 그리고 한자로 써야만 알아볼 수 있는 문언식 단어는 신문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자주 예로 드는 山西와 陝西, 買와 賣, 戒嚴과

11) 王玉川, 〈拉丁化新文字的缺點〉, 《中國語文的新生》, 149쪽.

12) 紺弩, 〈四聲論〉, 《中國語文的新生》, 136쪽.

解嚴, 그리고 油와 有와 又 같은 단어는 실로 적지 않다. 신문자 방안은 지금 감지한 것과 반드시 구분해 주어야 할 것은 모두 구분했다.(……중략) 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실천 과정에서 점차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필요한 부호를 완고하게 거절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음에 ‘성조’를 표기하지 않고, 그것을 ‘평상거입’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다.¹³⁾

한어를 포함하여 모든 언어는 그것이 語調이든 字調이든 나름의 음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모든 언어가 그러한 음조를 서면어에 부호로 표기하는 것은 아니었다. “영어나 불어도 음조가 있고 가벼운 음과 무거운 음이 있지만 표기하지는 않는다. 일어의 경우에도 로마자모로 병음할 때는 가장 중요한 장음도 표기하지 않는다.”¹⁴⁾ 라틴화신문자 방안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어에 본래 존재하는 성조를 부정하거나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병음문자 체계 속에 성조를 별도의 자모로 병기하는 것에 반대할 뿐이었다. 라틴화신문자 진영에서도 성조가 한어의 주요한 구성 요소 중의 하나로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어를 병음자모로 표기하고자 할 때 이러한 성조의 위상과 영향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라틴화신문자 방안도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성조를 표기하는 방식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라틴화신문자 진영은 한어 병음방안이 한자를 대체할 새로운 문자체계를 포방하는 만큼 성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즉 한어 병음방안의 본질은 한자의 독음을 표기하는 ‘부호’가 아니라 구두어의 어음을 표기하는 ‘자모’여야 한다. 따라서 ‘한자의 독음’이 아니라 ‘구두어의 어음’의 각도에서 성조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고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의 성조를 대체하거나 제어할 방안과 서사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조를 표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그것이 필요한지 여부와 이로운지 여부에 달려 있다. 성조는 분명히 중국어음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한자(……중략)의 독음이라는 각도

13) 紺弩, 〈四聲論〉, 《中國語文의 新生》, 137~138쪽.

14) 鄭君實, 〈國語羅馬字的缺點〉, 《中國語文의 新生》, 179쪽.

에서 그것을 고찰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살아있는 구두어라는 각도에서 그것을 고찰해야 한다. 즉 그것이 구두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이 발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되어 소멸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밖에도 지면 위로 옮겨 왔을 때 그것을 대체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인공적인 방법으로 언어를 제어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더 이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소멸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¹⁵⁾

또한 구두어에서는 성조가 어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성조를 표기하기 어렵다. 성조를 표기하게 되면 문장의 자연스러운 어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Je suannde sherme shu!(這算得什麼書!)”에서 Je를 Jeh로 쓰면 말할 때의 어조를 나타낼 수 없다.¹⁶⁾

사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어를 실제 구두어에 다가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쫓아가게 만든다는 점이다.(……중략) 개별 글자가 다른 글자와 연결되어 단어가 된 후에는 원래의 한자가 보존하고 있던 성조가 변하는 경우가 많다.(여기에서는 물론 구두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地上’의 ‘上’은 매우 약하게 소리 난다. 하지만 국어 로마자에서는 여전히 융통성 없이 사성 규칙을 지켜서 dih shanq(地尙)으로 써야 한다. 또 ‘漢口’의 ‘口’도 말할 때는 약하게 소리 내도 상관없지만 순수한 3성을 병기하여 Hannkoou로 써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설사 북경 사람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좀 어색할 수밖에 없다.¹⁷⁾

따라서 한자의 독음이 아니라 구두어의 어음을 표기할 경우 성조를 독립된 자모로 병기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나날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병음문자 안에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조는 한어의 특성이다. 하지만 특성이라는 것은 결코 불변의 것이 아니다. 상형은 일찍이 중국문자의 특성이었으나 지금의 한자에는 약간의 흔적만 남아있다. 단음절도 한어의 특성이었지만 다음절어가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이 역시 나날이 소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어의 성조는 고대의 구성(九聲)에서 점차

15) 焦風, 〈從闡明差異去追求統一〉, 《中國語文的新生》, 172쪽.

16) 李應, 〈希望大家放棄成見〉, 《中國語文的新生》, 174쪽 참조.

17) D.T.M. 〈國語羅馬字與拉丁化〉, 《中國語文的新生》, 193쪽.

소실되어 사성이 되었으며, 지금 이 사성도 점차 사멸되고 있다. 어떤 지방들에서는 이미 각 성조의 차이를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 수많은 다음절어에서는 성조를 잃어버린 경성(輕聲)자들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특성이라는 이름으로 점차 사멸되어 가는 성조를 병음문자 안에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¹⁸⁾

한편 성조는 기본적으로 한자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한자를 병음문자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한자의 부속물인 성조도 함께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로지 한자만이 사성을 필요로 한다. 한자는 단음자이고, 구조가 복잡하고, 알아보기도 기억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글자의 증가도 가로막아서 ‘通假’의 방법으로 부연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같은 형태이면서 음과 뜻이 다르거나 같은 음이지만 형태와 뜻이 다른 글자가 매우 많아서 또 사성의 방법으로 부연 설명할 수밖에 없다. 吳稚暉의 말처럼 “사성은 역사적으로 대략 세 가지 기능을 했다. 첫째는 사성을 빌어서 같은 형태 글자의 다른 뜻을 구분한 것이고, 둘째는 사성을 빌어서 다른 형태의 동음자를 구분한 것이며, 셋째는 시를 지을 때 평측으로 사용한 것이다.”(……중략) 사성의 가장 큰 용도는 옛 시나 변문에 있으며, 시나 변문 때문에 생겨나고 존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이다.(……중략) 이러한 사례들로 보면 사성은 모두 한자에서 나온 것이고, 한자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며, 한자의 부속물이다. 따라서 한자를 폐지하고자 하면 당연히 그것의 부속물인 사성도 폐지해야 한다.¹⁹⁾

더욱이 중국의 문자체계는 오랫동안 한자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병음문자가 등장했을 때 그것을 한자와 연관된 것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매우 컸다. 따라서 국어로마자 방안처럼 성조를 자모로 표기하게 되면 그것을 한자를 대체할 독립적인 문자체계가 아니라 한자의 독음을 제시해주는 병음자모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쉬웠다.

신문자를 배우거나 응용할 때 자신의 시각과 이론이 아무리 투철하더라도 어느

18) 潘古干, 〈關於[新文字的缺點]〉, 《中國語文的新生》, 161쪽.

19) 紺弩, 〈四聲論〉, 《中國語文的新生》, 137쪽.

정도 한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중략) 하지만 신문자를 주장하는 만큼 이러한 난관을 타파하고 새롭게 신문자의 실제 지식과 이론을 장악해야 한다.(.....중략) 국어로마자는 비록 독립적인 문자라고는 하지만 그것의 전체적인 구조는 거의 다 한자의 비위를 맞추려 하는 것이어서, 한자의 후원을 벗어나서는 몇 걸음도 옮기기 어려울 듯하다.(.....중략) 현재 국어로마자의 별명은 ‘國音字母第二式’이다. 이 이름은 아주 절묘한 곳을 건드린 것으로 정말 ‘명실상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음부호’는 한자의 ‘국수와 부인’, ‘국어로마자’는 한자의 ‘서구과 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²⁰⁾

라틴화신문자 진영에서는 병음문자가 완전한 독립성을 갖춘 새로운 문자체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성조의 흔적을 없애는 한편 구두어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자형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성조 표기 대신에 단어 이어쓰기나 품사 표지 등과 같은 서사 규칙으로 해당 어휘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병음문자를 점진적으로 완전한 새로운 문자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다.

2) 동음이의어 처리와 성조 표기

한어에는 다른 병음문자보다 동음이의어가 유독 많다. 이는 기본적으로 어음의 차이보다는 자형의 차이로 의미의 변별성을 부여해 온 한자의 전통적인 造語法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한자로 표기해 온 한어의 어휘를 병음문자로 표기하게 되면 그동안 청각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시각적으로는 충분히 구분이 가능했던 어휘들이 한순간에 동일한 자형의 동음이의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한어 병음문자 방안은 반드시 동음이의어 양산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어로마자 진영에서는 이러한 병음문자 방안의 동음이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표기할 때 성조를 함께 병기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국어로마자에서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

20) 高毓溥, 〈國語羅馬字和拉丁化之合流〉, 《中國語文的新生》, 187쪽.

다. 예를 들어 mae를 買, may를 賣의 병음으로 하면 두 글자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gae(改)와 gay(蓋), hae(海)와 hay(害) (……중략) 등의 글자들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mae(買)와 may(賣) 같은 글자는 일종의 핵심 글자(key word)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핵심 글자를 익히기만 하면 이 핵심 글자와 같은 운(韻脚)의 나머지 글자는 특별히 별도로 익힐 필요가 없이 병음을 표기하자마자 알 수 있다. 전체 한어에서 150개의 핵심 글자만 익히면 문화 보고의 문을 열 수 있다. 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정밀하고, 기발한 문화도구인가!²¹⁾

하지만 동음이의어 문제는 대부분의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어들이 동음이의어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음이의어는 앞뒤 어휘나 구절, 또는 위아래 문장과의 의미 연관 관계 속에서 변별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어의 take는 무려 30여 개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어휘 간의 의미 연관 관계 속에서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영어를 조금이라도 배워본 사람이라면 'We can play hide and seek.'를 '我們罐頭戲劇牛皮與尋找.'라고 번역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밖에도 '보는 것도 'watch'이고 '시계'도 'watch'이며, (……중략) '나는 것도 'fly'고 '파리'도 'fly'이며, (……중략) '두 번째'도 'second'고 '초(시간)'도 'second'이며, 제방도 'bank'이고 '은행'도 'bank'이다. (……중략) 하지만 영어에 이러한 동음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병음문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²²⁾

한국어의 '배, 배, 배, 배...'도 비록 음장의 차이는 있지만 동음이의어나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각각의 '배'는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단어로서의 의미를 확정짓기 어렵다. 하지만 "배가 아프다." "배를 먹는다." "두 배 벌었다." "배를 타고 가다." 처럼 앞뒤 어휘와 만나서 하나의 구절이나 문장을 구성하는 순간 각각의 '배'는 의미의 변별성을 획득하게 된다. 특히 실제 구두어에서는 '단어'로만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대부분 '구절'이나 '문장'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21) 王玉川, 〈拉丁化新文字的缺點〉, 《中國語文的新生》, 154쪽.

22) 라틴화신문자 방안에 비판적이었던 王玉川도 〈國語羅馬字疑問解答〉에서 병음문자 방안이 동음이의어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한자용호론자들의 비판에 대해 이처럼 반박한 적이 있었다. 潘古干, 〈關於[新文字的缺點]〉, 《中國語文的新生》, 160쪽에서 재인용.

라틴화신문자 진영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한어의 동음이의어도 상당 부분은 앞뒤의 어휘가 의미 상관 구조를 이루는 순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라틴화신문자 방안이 대부분의 어휘를 보통 병음법에 따라 성모와 운모만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主意와 主義는 국어로마자로 모두 Juuyih이다. 만약에 그것을 단독으로 Juuyih라고 쓰면 (국어로마자논자인) 王玉川도 그것이 主意인지 主義인지 확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Sanmin Juuyih라고 하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主意가 아니라 主義라는 것을 알 수 있다.(……중략) 따라서 라틴화신문자에서 쉽게 혼동을 일으키는 단어는 사실 王玉川이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²³⁾

라틴화신문자 진영은 대부분의 언어가 동음이의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어에서만 지나치게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단어를 고립된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라틴화신문자로 표기하면 麻·馬·罵 세 단어는 같은 음이다. 때문에 단독으로 보면 물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낼 수 없다. 하지만 하나의 완전한 구절에서는 구분하기 쉽다. 麻는 種을 동사로 갖고, 馬는 騎를 동사로 가지며, 罵는 그 자체가 동사로 뒤에 ‘人’을 목적어로 갖는다. 따라서 種馬, 騎麻, 馬人, 또는 麻人으로 오해할 소지가 매우 적다. 게다가 이들 단어들은 함께 쓰일 경우가 극히 적다.²⁴⁾

하지만 국어로마자 진영에서는 한어 병음문자가 성조 표기 없이 문장을 쓸 경우 동음이의어와 마찬가지로 어의 확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라틴화신문자 방안에 따라 써진 “Ta mailiao nide ma.”라는 문장은 각각 “他買了你的麻.” “他賣了你的馬.” “他埋了你的媽.”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문장 서사법으로서 심각한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특정 어휘에만 성조를 표기해주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²⁵⁾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 역시 앞뒤 문장의 맥락과 語境을 통해 충분히 해결

23) 李應, 〈希望大家放棄成見〉, 《中國語文的新生》, 174쪽.

24) 紺弩, 〈四聲論〉, 《中國語文的新生》, 138쪽.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국어 로마자 방안의 성조 표기 방식을 따르더라도 성조까지 동일한 劍과 箭, 楊과 羊, 姜과 江, 主意와 主義, 運輸와 韻書, 意義와 異議 같은 동음이의어들은 여전히 구분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성조 표기 규정의 난이도와 성조 표준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로마자 진영이 강력하게 성조 표기 규칙을 고수했던 것은 라틴화신문자 방안처럼 성조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원래는 서로 다른 성조의 각기 다른 어음이었던 어휘까지 동음이의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영어에서의 동음자는 명실상부한 동음자이지만 라틴화신문자에서 동음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언어에서는 결코 동음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 媽와 馬, 買와 賣, 墳과 糞 등이 그것이다. 이 글자들은 대중들의 구두어에서는 분명하게 구분되며, 결코 동음이 아니다. 실제 언어에서는 결코 동음이 아닌 글자가 라틴화신문자로 표기하기만 하면 동음자가 되고 만다. 이는 사실 라틴화신문자가 한어에 미안해해야 하는 부분이다.²⁶⁾

이 때문에 국어 로마자 진영에서는 라틴화신문자 방안에 대해 “말했을 때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어휘는 써냈을 때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불분명하게 써냈다면 그것은 그 병음법이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⁷⁾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한어에 유독 동음이의어가 많은 것은 새로운 어휘가 필요할 때마다 어음의 변화보다는 주로 자형의 변화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해 온 한자의 전통적인 조어법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게다가 대중들이 구사하는 구두어에서는 성조가 아니라 주로 음색과 음장의 차이로 어음을 구분하며, 다음절어의 사용으로 단음절 동음이의어의 혼동을 피해가고 있었다.²⁸⁾ 따라서 라틴화신문자 진영에서는 동음이의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조 표기법 외에 어휘 구조를 다음절어 위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조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5) 王玉川, 〈拉丁化新文字的缺點〉, 《中國語文的新生》, 150~151쪽 참조.

26) 王玉川, 〈到攜手之路〉, 《中國語文的新生》, 166쪽.

27) 王玉川, 〈到攜手之路〉, 《中國語文的新生》, 167~168쪽.

28) 焦風, 〈從闡明差異去追求統一〉, 《中國語文的新生》, 172~173쪽 참조.

이에 대해 국어로마자 진영에서는 단음절어를 다음절어로 바꾸게 되면 많은 동음이의어들을 구분할 수 있지만 대중들에게는 자칫 구두어의 습관과 유리된 ‘新文言’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買는 購買로, 賣는 售賣로, (……중략) 書는 書籍로, 樹는 樹木로 고쳐 나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많은 글자들의 뜻이 구별된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휘들은 일반 대중들의 구두어에는 없는 것이어서 읽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자는 지식인들의 노리개로는 적합할지 모르나 민중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도구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 때문에 라틴화신문자는 신문언어를 적는 도구라는 孫先六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²⁹⁾

또한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들 중에는 실제로 단음절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로 성조에 의지하여 의미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다음절어로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라틴화신문자 방안의 ‘단어 이어쓰기’나 ‘특별 병음법’도 한어의 본질에 부합하는 동음이의어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라틴화신문자도 ‘필요할 때’는, 예를 들면 ‘買’, ‘賣’와 같은 단음절어의 경우에는 국어로마자의 성조구분법을 채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필요할 때’의 방법도 우리가 1924년 전후로 사용해 본 방법이다. (……중략) 이후에 민중들의 언어를 실제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단음절어가 정말 많으며, 특히 동사류는 전적으로 성조에 의거하여 구분하고 있어서 서로 다른 형태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억지로 ‘複音詞’로 바뀌서는 결코 살아있는 언어가 사용하는 문자가 될 수 없다. (……중략) 그들이 일상생활의 동사를 표현할 때, 단음절어를 다음절어로 바꿔서 말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입에 맞추지 않고 쓰기에 맞추게 되면 ‘신문언’이 되고 만다. 또한 라틴화신문자의 이어쓰기는 어떤 때는 ‘단어’도 아니고 ‘성어’도 아니고, 길게 이어쓰기만 하고 문법도 분명하지 않다. (……중략) 결국 ‘단어 이어쓰기’는 언어의 본질상 이어써야 하는 것이지 일종의 구제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성조 구분’ 또한 한어의 본질상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구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추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³⁰⁾

29) 王玉川, 〈拉丁化新文字的缺點〉, 《中國語文的新生》, 154쪽.

30) 黎錦熙, 〈蘇俄的(中國字拉丁化)與國定的(國語羅馬字)之比較〉, 《中國語文的新生》,

그런데 언어는 습관이기도 하지만 제도이기도 하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개별적인 습관들을 하나의 공통된 규칙으로 제도화 한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언어의 공공성과 그것에 기초한 소통성은 결코 확보될 수 없다. 어휘 사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위적인 규범을 통해 개별적인 습관들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공공성과 소통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적으로 개인들의 자유 의지에 맡기고 인위적인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언어의 공공성 획득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표준 성조의 실효성

국어 로마자 방안이 성조 표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표준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던 또 하나의 이유는 ‘국어 통일’이라는 임무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조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한어에서 사성의 용도는 주로 시나 변문을 짓는데 있었지 구두어의 음조를 나타내는데 있지 않았으며, 소위 ‘표준 성조’라는 것도 책에서나 사용되었지 구두어에서는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국어 로마자의 유일한 장점이 사성의 변화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장점은 오히려 그것의 단점, 게다가 가장 나쁜 단점이다. 현재 어느 지방이든 글자를 아는 사람들 중에 아마도 80%는 이미 성조가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90%는 결코 모든 한자의 성조를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 하물며 아직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겠는가?³¹⁾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조가 아무리 중요하고, 성조의 표기 규칙이 아무리 체계적이고 정밀하더라도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어 로마자 방안의 성조 표기 규칙을 설계한 이들도 처음 그것을 익힐 때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에 비해 그것을 익혀서 사용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성조

130쪽.

31) 鄭君實, 〈國語羅馬字的缺點〉, 《中國語文的新生》, 179쪽.

표기 규칙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성조 표기가 있는 국어로마자를 익히는 것이 성조 표기가 없는 라틴화신문자 방안을 익히는 것보다 대략 한두 달이 더 걸리는 것이 사실이며, 국어로마자논자들 도 결코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어로마자논자들은 가르치는 데 한두 달 을 더 들이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趙元任이 잘 설명했듯이 “만약 사 성을 달지 않고, 학생들에게 읽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학습 시간을 절반 이상 줄 일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어쩔 줄 몰라 한다. 따라서 몇 개월의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장래에 한 평생 수십 년 동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 자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당장 몇 개월의 시간을 절약하는 데 마음을 두지 않는 다. 몇 주나 며칠의 시간을 들여서 장래에 한 평생 수십 년 동안 사용하기에 불편 한 속성과목의 간편한 문자를 배우는 것은 눈앞의 이익만 따지는 것으로 결국에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³²⁾

그런데 국어로마자 방안의 성조 표기 방안이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 것은 단지 각 성조별 자모 표기 규칙이 복잡해서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익힐 수 있었다. 문제는 한어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성조도 지역마다 적지 않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국어로마자 방안의 표준 성조와 각 지역이 나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두어의 자연 성조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언어의 발음에는 높고 낮음이나, 강약, 장단, 속도의 구분이 있다. 이러한 구분 은 각 지역의 습관이 다르고,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가 다르고, 말의 중심 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경직된 사성의 표준과 범위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³³⁾

이러한 상황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국어로마자 방안이 규정한 표준 성조 를 따르라는 것은 “각지에서 천차만별의 성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익 숙한 五聲, 六聲, 八聲, 九聲을 일률적으로 북경의 사성 틀에 맞추라고 하는 것”³⁴⁾으로서 실행에 옮기기 매우 어려운 요구였다. 예를 들면 북방 각 성의 성조는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도 적지 않았다. 같은 성 안에서도 지역에

32) 王玉川, 〈到攜手之路〉, 《中國語文的新生》, 169쪽.

33) 紺弩, 〈四聲論〉, 《中國語文的新生》, 135쪽.

34) 潘古干, 〈關於[新文字的缺點]〉, 《中國語文的新生》, 161쪽.

따라 서로 다른 성조로 말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성조는 정확한 음조로 읽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성조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구분하기 어려웠으며, 어느 지역은 표준어의 성조에 해당하는 음조가 존재하지 않기도 했으며, 같은 성조의 글자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성조로 읽히기도 해서 표준어의 성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북경 이외의 지역에서는 해당 성조를 표준어의 성조에 맞게 소리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국어로마자논자들은 자신들의 성조 구분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으며, 북경 이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줄 뿐이었다.³⁵⁾

물론 국어로마자 방안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북경어를 표준으로 삼은 데서 기인하는 것이지 성조 표기 규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국어와 비교적 거리가 먼 지역의 사람들이 국어로마자를 배우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전적으로 성조의 표기로 돌리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다.(……중략) 남방 사람들이 배우기 어려워하는 것은 성조의 표기 때문만은 아니다. 성조를 표기하지 않는 북방어 라틴화신문자 방안을 남방인에게 배우게 하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중략) 이러한 어려움은 대부분 언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성조의 표기 여부로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³⁶⁾

하지만 이 말은 국어로마자 방안이 한어의 주요한 구성 요소인 성조를 명확하게 표기해 줄 수 있고, 동음이의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분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북경어를 사용하는 극히 일부에게나 적용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줄 뿐이다. 방언을 사용하는 절대 다수 사람들은 국어로마자 방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표준 성조와 그 표기법을 별도로 익히지 않으면 되었다.

당시 국어로마자논자들은 성조 규칙을 익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표준 성조와 표기법을 익히는 것과 그것을 익혀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실제로 이 규칙에 따라 서사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성조 표기 규칙뿐만 아니라 개별 글자들의 표준 성조를 모두 정확하게 암기하지

35) D.T.M. 〈國語羅馬字與拉丁化〉, 《中國語文的新生》, 191~192쪽 참조.

36) 王玉川, 〈到攜手之路〉, 《中國語文的新生》, 169쪽.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조 표기 규칙은 아무리 어려워도 암기하면 그만이었지만 글자 하나하나의 표준 성조를 일일이 외워서 정확하게 서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³⁷⁾ 표준 성조를 모를 경우에는 아예 문장을 쓸 수 없으며, 표준 성조를 잘못 알고 있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의미 혹은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는 문장을 쓰게 될 수도 있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국어로마자의 성조 표기 방안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가 아니라 그것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표준어와 성조를 고집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국어로마자 방안의 공용어 구축 전략과 성조 표기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라틴화신문자 방안이 북경어를 표준으로 삼아 그것의 어음과 성조를 자모로 표기하는 것에 반대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아래로부터 위로의' 공용어 구축 전략과 제한적인 성조 표기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IV. 나오는 글

국어로마자 방안과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한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어문체계를 로마자모 체계로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방안은 20세기 초 중국 어문개혁운동의 각기 다른 단계와 노선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국어로마자 방안은 1920년대 중반 국어운동의 일환으로 고안된 것이었다면,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1930년대 중반 대중어문 운동의 일환으로 고안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두 방안은 당면한 어문현실에 대해 서로 다른 상황 인식과 대응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국어로마자 방안과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모두 전국적 공용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용어 구축 전략의 우선순위와 추진방법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국어로마자 방안은 북경어를 '국어'의 표준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급하는 방식으로 전국의 언어를 통일하고자 했다. 이에 비해 라틴화신문

37) D.T.M. 〈國語羅馬字與拉丁化〉, 《中國語文的新生》, 192쪽 참조.

자 방안은 대중들이 사용하는 방언들 간의 공통분모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국적 '보통화'를 구축해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용어 구축 전략의 우선순위와 추진방법상의 차이는 한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어문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먼저 국어로마자 진영은 국어와 방언의 역할 분담과 공존 가능성을 인정하고 방언 로마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북경어를 방언 구역간의 매개어로 활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라틴화신문자 진영은 국어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북경어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북경어를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한편 방언 문자를 익힌 후에는 북경어에 기초한 표준어 라틴화신문자를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천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호 조율이 이루어졌다면 공용어 구축 전략을 둘러싼 양 진영의 논의는 보다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며 어문개혁의 목표도 보다 원만하게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어로마자 방안과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모두 성조가 한어의 주요한 특징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방안은 '성조의 위상과 성격', '동음이의어 처리와 성조 표기', '표준 성조의 실효성'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국어로마자 방안은 한어에서 성조는 성모, 운모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동음이의어를 구분하는데 효과적이며, 국어의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어휘에 성조를 자모로 병기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라틴화신문자 방안은 성조는 일종의 음조 변화이자 한자의 부속물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동음이의어는 의미상관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으며, 국어의 표준 성조와 구두어의 자연 성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근에 한해 제한적으로 성조를 표기해주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공용어 구축 전략과 성조 처리 규정을 둘러싼 두 방안 사이의 논쟁은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성조 처리 방안을 둘러싼 두 방안의 입장 차이는 기본적으로 공용어 구축 전략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결국 표준어와 표준 성조로 국어를 통일시킬 것인가 방언과 자연 성조를 기초로 공용어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두

방안의 본질적인 차이는 공용어 구축 전략에 있었으며, 성조 처리 방안을 둘러싼 대립과 논쟁은 이에 수반된 부차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방안은 당면한 어문 현실에 대한 서로 다른 상황 인식과 대응 전략 속에서 ‘국어’와 ‘보통화’라는 각기 다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공용어 구축 전략과 성조 처리 방안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한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어문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목표와 로마자모라는 자모체계를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병음문자 체계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參考文獻】

- 倪海曙 編, 《中國語文的新生》(時代出版社, 1949년판 영인), 《民國叢書》編輯委員會編, 《民國叢書》第二編 52, 上海書店, 1989
- 黎錦熙, 《國語運動史綱》(商務印書館, 1934년판 영인), 《民國叢書》編輯委員會編, 《民國叢書》第二編 52, 上海書店, 1989
- 瞿秋白, 〈羅馬字的中國文還是肉麻字中國文?〉, 《瞿秋白文集·文學編3》, 人民文學出版社, 1985
- 瞿秋白, 《新中國文草案·緒言》, 《瞿秋白文集·文學編 3》, 人民文學出版社, 1985
- 高天如, 《中國現代語言計劃的理論和實踐》, 復旦大學出版社, 1993
- 홍인표, 《중국의 언어정책》, 고려원, 1994
- 倉石武四郎 著, 金鍾五 譯, 《漢字的運命》, 正音社, 1974
- 拙稿, 〈瞿秋白的《新中國文草案》研究〉, 《中國文學研究》第41輯, 韓國中文學會, 2010. 12.
- 拙稿, 〈근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과 ‘國語羅馬字’ 방안〉, 《中國文學研究》第45輯, 서울, 韓國中文學會, 2011. 11.
- 拙稿, 〈대중어문 운동과 라틴화 신문자 방안〉, 《中國文學研究》第51輯, 韓國中文學會, 2013. 6.

【中文提要】

國語羅馬字方案與拉丁化新文字方案不但具有羅馬字母體系, 而且追求要

把以漢字爲中心的現存語文體系根本改革的目標。可是兩個方案對於當前的語文現實具有不同的認識和戰略。首先，它們對於全國公用語的必要性表示同感，可是在建設全國公用語的主次順序和推進方法上顯示出不同的態度。其次，它們共同認爲由於聲調是漢語的主要特點之一，所以漢語拼音文字方案應該考慮相應的處理方法，可是對於“聲調的地位和性質”、“同音異議語處理和聲調表示的關係”、“標準聲調的實質效果”等的問題具有不同的認識。因此，兩個方案雖然具有同一的羅馬字母體系和文字改革目標，然而一直堅持不同的拼音文字體系。

【主題語】

國語羅馬字, 拉丁化新文字, 文字改革, 標準語, 聲調

National Language Romanization, Latinized Chinese Character, character revolution, standard language, intonation

투고일: 2014. 10. 15 / 심사일: 2014.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4. 11. 10